



## 대전국립중앙과학관 과학전시경영과 오규진 과장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오규진 과장과 인터뷰를 약속한 날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우리나라와 일본의 결승전이 있었던 날. 인터뷰 약속 시간은 다 돼 가고, 차안 라디오에서는 9회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는 끝날 줄 모르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아쉽게 차의 시동을 끄고 약속 장소로 발길을 옮겨야 했다.

평일의 과학관은 야구로 인해 한창 들떠 있는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오규진 과장을 만나 천체관으로 이동해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곳 천체관을 만들 당시에 실무책임자였습니다. 1990년에 국립중앙과학관이 개관을 했으니 거의 20년 전 일이네요. 이후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한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4월이면 여기 다시 온 지 2년이 되는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같은 업무를 두 번씩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곳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흐르고, 과학에 최신 시설을 갖춘 과학관이 생겨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낮아지지는 않았나 궁금했다.

“대략 백십팔만 점의 과학기술전시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설 과학관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시, 운영에 관한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과학관 보다는 과학과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주제

로 이야기를 꾸며나가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까지의 과학기술 발전 모습을 보면서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관은 지식을 공유하는 곳이고, 평생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여러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병행해 천체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사이언스 영화관 등 시설 개선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특히 천체관 쪽은 많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신 디지털 투영기를 설치해 기존의 광학식 투영기와 함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돔 스크린에 투영되는 디지털 영상은 기가 막힙니다. 광학식 투영기로는 구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한 오규진 과장은 학회의 태동에 과학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한다.

“과학관이 개관하고 나서 일요일이면 초창기 아마추어천문학회 멤버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법인화 하는 데도 도움을 줬고요. 지금은 전국에 있는 천문우주과학관 모임인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통해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죠. 20여 년 전에 이곳에 있으면서 아마추어천문학회 회의를 보았고, 지금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천문 단체를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와 이곳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천체관 로비에는 지난 해 천체사진공모전 당선작이 전시돼 있었다. 오규진 과장은 공모전 심사위원이기도 하다.

“정말 사진들이 멋지더군요. 출품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곤 하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대단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은 대략 40여 명이었다고 한다. 공모전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참여도가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출품자가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에 출품한 사진들 대부분은 열정 없이는 얻기 힘든 작품들입니다. 한 작품을 얻기 위해서 몇 달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밤을 새가면서 그런 열정을 쏟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일부 수상자의 실력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마추어 수준은 넘어서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아마추어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천문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그 영향이 훨씬 클 거라 봅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적은 편인데,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체관에서는 단지 영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화식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주마다 성악부터 시작해서 실내악, 생활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별과 하는 음악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추어들이 평소에도 궁금했던 것을 플라네타리움으로 구현해보는 기회도 만들고 있고요. 초·중등 과학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을 플라네타리움에서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았다. 만들어진 지 20여 년 가까이 지났지만 큰 발전 없이 정체돼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발전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량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학회가 해마다 어떤 목표한 실적을 내야하는 사업체는 아니잖아요. 천문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럼으로써 많은 모임과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원수라든지,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외형적인 부분을 보면 과거와 비교해 아주 큰 발전을 하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매년 전국적으로 관측회를 갖고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문 교육도 실시하는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추

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 자체도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건 그 어떤 가지적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산본이 집안 오규진 과장은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숙사 생활이 불편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출퇴근 시간이 절약돼서 여러 모로 좋단다.

“그 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색소폰을 배우고 있는데, 배운 지는 8개월쯤 돼요. 색소폰이 악기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명된 악기랍니다. 쇠덩어리로 돼 있어서 금관 악기로 알기 쉬운데, 목관악기로 분류됩니다. 같은 음을 내도 기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음색이 다양합니다. 표현력도 매우 뛰어나고요. 기쁨을 끌어내리는 저음과, 현란한 고음... 마음은 이런 멋진 연주를 하고 싶은데, 초보인저라 조금만 하면 숨이 콕콕 막힙니다. 전날에 술이라도 마시면 벌써 티가 나요. 그래서 가능한 먼 저녁 약속을 안 합니다.”

학생 때 기타를 조금 친 것을 빼면 음악과 별 인연 없이 지내왔지만, 지금 오규진 과장에게 음악은 일의 한 부분이자, 생활이 되었다.

“천체관에서는 하는 별음악회와는 별도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사이언스홀에서도 매주 일요일마다 음악회를 열 계획입니다. 대전·충청 지역 음악인들과는 이미 협의를 끝내 놓 상태입니다. 제가 색소폰에 입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그분들과 유대 관계를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회를 준비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는 분들이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참여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에 새삼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 동안 인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적인 바람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는 오규진 과장. 그러나 올해 인사에서만큼은 처음으로 속내를 얘기했다고 한다. 그건 ‘이곳에서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라는 한 마디였단다. 그의 바람대로라면 과학관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플라네타리움에서 멋지게 색소폰을 연주하는 그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들과 함께 찍어야 한다며 직원들을 카메라 앞에 불러 세웠다.